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을 위한 개발커뮤니케이션 접근

전은경 · 김성수

서울대학교

Development Communication Approaches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Eun Kyung Chun and Sung 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exploratory study were to interrelate the scholastic discipline of the 'development communication' into 'community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in terms of interests, view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se fields of social sciences;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cholastic interactions among these fields to pursue common social changes of human society.

Development communications provide opportunities to set goals, to decide contents, and to utilize communication media in developmental efforts. Contemporary trends of development communication, community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are concerned with indigenous, two-way, bottom-up and people-centered communication from exogenous, one-way, top-down and institution-centered communication of the past.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communication concepts and methodology may increase the potentials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ome of the development communication approaches such as traditional and folk media approach, new media or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pproach, participatory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approach, communication support development approach and mass media approach may be applicabl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adult education. Better understanding on development communication approaches will be needed for the adult educators as well as community development practitioners.

Key Words : Development communication, Community development, Adult education, Participatory communication

I. 시작하는 말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동물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가지며 이로써 사회적 존재가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도적 행위(proaction)와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

(reaction)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과정, 즉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이며, 인간은 이 과정에서 언어, 문자, 그림, 기타 상징적(symbolic)의 사전달 수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 이야말로 인간사회 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의 여하에 따라 그 사회는 유기체와 같이 유지, 진보(progress)하거나, 퇴보, 쇠퇴하기도 한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갖으면서 자아(self)가 형성되어 하나의 원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인간의 진보를 위한 모든 활동은 그것이 교육이던 지역개발사업이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말이나 얼굴표정, 신체접촉 등과 같이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정보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문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이어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거쳐 현재는 정보통신기술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탄생시켰다.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라디오, TV 등의 기술에 의해 주도된 반면 정보통신기술 커뮤니케이션 시대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매체들과의 상호 융합하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큼 인간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개발 커뮤니케이션(development communication)은 인간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개발 노력에 커뮤니케이션 입장으로 접근하는 분야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노력에서 그 과정에 관여된 사람들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법(skill), 매체(media), 전략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진보는 그것이 어떤 개발

영역이던간에 커뮤니케이션 접근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개발종사자들간에도 커뮤니케이션적 이해와 기술, 그리고 매체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개발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개발노력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분과적으로 발전해 온 학문적, 실천적 전통 탓에 타분야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되어 온 철학과 다양한 기법과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에 개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을 접목함으로써 실천과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지역사회개발, 사회교육 그리고 개발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은 낙후된 지역이나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회변화이다. 각기 다른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나름의 전략으로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학문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철학, 목표, 대상, 실천과정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교육(non-formal & adult education)이란 비정규 교육 및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미한다. 학교교육 즉 정규교육과 대비된 사회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교육이 실천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민주적, 민중적 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운동을 통해 봉건적 권위구조와 여타 억압구조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계몽주의적 실천과정인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복구와 경제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자본개발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교육이

1)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에 의하면 모든 유기체는 외부환경이나 내부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고 진화를 이룬다. 유기체 즉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사회 및 개인도 차원은 다르지만 각각이 하나의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여러 개의 하부 체계로 구성되어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또한 모든 체계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교육이 정치-시민 사회변동 중심에서 복지국가 및 사업인력의 양성애의 기여하는 영역으로 흡수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한승희, 1999). 이와 같은 흐름에서도 추정되었듯이 사회교육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개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교육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즉 지역사회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사회교육이다. 지역사회개발의 중요한 전략으로 사회교육적 원리의 존중과 사회교육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교육은 그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터가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터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사회교육은 사회교육자가 사회교육내용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Hills, 1987). 또한 사회교육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인식하지는 않더라도 사회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접근, 그리고 매체를 사용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iy development)이란 용어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이다. 1940년대 영국의 연방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고안하는데 이 용어를 썼고, 2차대전후 1950년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저개발국가의 개발지원과정에서도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낙후된 지역의 소외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와 '개발'이란 용어의 합성어이기 는 하지만 단순히 이 둘만의 합은 아니다. 그 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에 있어서 특히 개발 또는 발전의 의미가 달라져 왔다. 초기에 지원을 주던 정부나 기관 주도적 관점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과 문화를 권장하는 방식의 개발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의 사례가 증명하듯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개발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사회변동에 관한 이론이 도입되고, 민주적인 절차의 중요성과, 무엇보다도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자각이 생겼다. 즉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와 결합되어 사회의 진보, 즉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의 교육과정이며 이에 의해 촉진되고 완결된다는 관점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개발은 사회교육과 맥을 같이하며, 동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로 묘사되기도 한다(정득진, 2000).

이와 같이 사회교육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개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교육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사회교육이다(정지용, 1999; 정득진 1999).

개발 커뮤니케이션(Development Communication 혹은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이란 말은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이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말은 원래 공통 또는 공유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Communis**라는 단어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생물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유 혹은 공통화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혹은 발전²⁾은 향상된 생활조건을 추구하는 특별한 형태의

2) 영어의 **development**는 개발 혹은 발전으로 번역되는데 우리말에서는 개발은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은 결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맥락에 개발 혹은 발전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로는 같은 의미임을 밝힌다.

사회변화이다. 즉 바람직한 혹은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개발인 것이다. 물론 개발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개발의 주인공들이 설정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이 학문과 실천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생겨나면서 미국과 UN기구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으로서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써 시작되었다 (Vargas, 출판준비 중).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발달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실천과 적용은 주로 제3세계에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1940년대 자국의 농촌지도사업분야에서 시작되어 검증된 이론을 제 3세계 여러 국가들의 개발 지원에 적용한 것이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은 전후 약 50여년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국제단위의 다양한 개발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각국내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개발, 농촌지도, 보건, 영양, 가족계획, 교육, 환경, 식량, 청소년, 에이즈 방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략적 주요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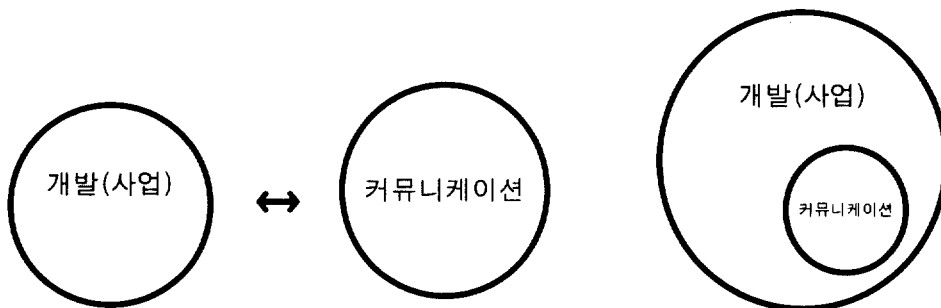
개발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노력과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파악되어진다. 첫째는 개발(사업)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더 높은 차원인 상부체계의 하부체계로 보는 입장이다. 이 상부체계내에서 이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부체계를 환경에 적응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상위체계인 개발(사업)의 하부체계로써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입장이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어 활용된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개발사업이라는 상위체계에 속한 다른 하부체계들과 함께 개발사업에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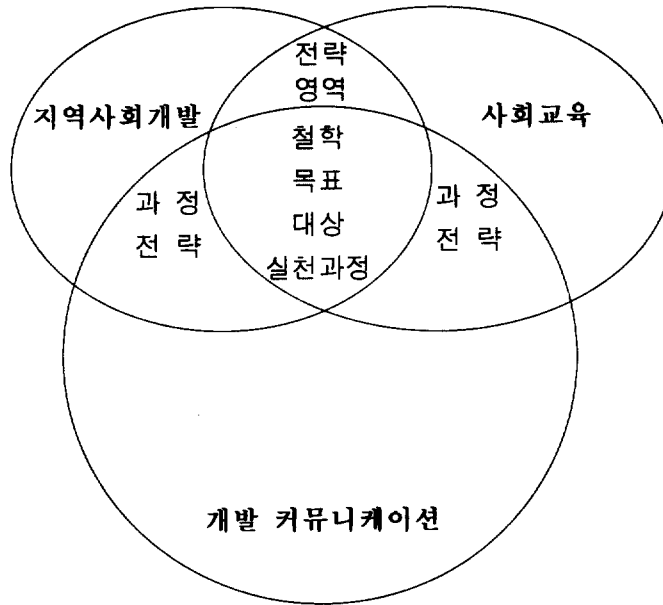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지역사회개발, 사회교육,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서로 공통적인 철학적 바탕과 목표 및 실천과정, 대상을 공유하는 점이 있다.

우선 이 세 영역의 철학적 바탕과 목표면에서 세 영역이 모두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인간의 진보 즉 발전을 공통의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실천과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공통된 목표를 수립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는 점이다. 대상면에서는 세 영역 모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주민, 사회문제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회교육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개발 커뮤니케이션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개발은 사회교육을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한다. 지역사회개발에서 요구되는 주민교육



<그림 1> 개발(사업)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림 2〉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개발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개발교육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교육인 것이다.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교육과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교육 과정 자체가 발전이라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가장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모형인 커뮤니케이터-메시지-채널-커뮤니케이터-효과 모형으로 보면 지역사회개발자나 사회교육자가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그 반대로 주민들은 보내어진 메시지에 대해 반응하여 조정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교육과 개발 커뮤니케이션 관계 역시 사회교육과정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교육의 방법이자 전략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매체활용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세 영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 커뮤니케이션은 지역 사회개발이나 사회교육 연구자와 실천가에게 유용한 관점과 실천전략을 제공한다. 우선 체계적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체계적 관점은 개발사업에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다루어 온 부분 등을 고려하게 하고 이러한 하부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을 인지하고 파악하게 해준다. 즉 단편적으로 파악되고 이루어져 왔던 개발 노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노력이 행해지는 외부체계 및 상부체계와의 관계파악도 가능해진다. 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 기관의 여건 등은 개발사업의 상부체계이며,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나 분야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부체계이다. 하부체계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처리 체계가 유지, 진보하거나 퇴보 혹은 쇠퇴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노력에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개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기술, 매체, 전략과 접근들은 지역 사회개발이나 사회교육에 적용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역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한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Ⅲ.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적 이해

1.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발전

개발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간략히 정의하면 '개발과정에 관여된 사람들간에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법, 방법, 매체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파악이 요구된다. 첫째는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추구하는 결과 즉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측면이다. 우선 발전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신생 독립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개발국을 단기간에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과 미국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UN 기구들이 제3세계를 위한 원조사업을 통해 제3세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때의 발전에 대한 개념은 저개발국을 어떻게 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방법은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저개발국에 전달하고, 국민들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시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은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후진국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매스 미디어의 활용에 초점이 두어졌다. 근대화 패러다임으로 지칭되는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토대는 Lerner(1958)와 Schramm(1964), Rogers(1962)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이 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모형 즉 전달모형으로 지칭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발전된 국가는 산업 사회화된 서구사회이며, 빈곤국은 서구국가의 지식, 기술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관습,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서 선진사회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제성장 및 근대화 패러다임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특히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과거 20여년간 근대화 개발전략을 적용한 결과, 후진국의 실제적인 경제성장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일부 국가의 경우 GNP 자체는 증가하였지만 그 국가내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근대화 학파들이 서구 우월주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 정치경제학 문제의 간과 등으로 인해 많은 결함을 가진 개발 전략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종속이론가들은 신 식민주의와 세계시장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중심부(북미, 유럽)의 부와 산업화는 근원적으로 주변부(제3세계)의 빈곤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이의 개선 없이 제3세계 발전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전략면에서는 근대화이론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고, 기술을 전달하고,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중을 메시지의 수동적 이용자로 보는 입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계기로 개발을 통해서 추구하는 발전이 무엇인가 또 이를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근대화 이론가들이 경제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의

개념을 파악한 것과는 달리 사회, 윤리, 문화, 정신적 측면, 자력회복 등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사회적 정의, 형평, 주민참여, 임파워먼트(empowerment) 등 개념들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초기 패러다임과는 달리 개발이 단순히 외부기관이나 인사들에 의한 외생적 접근(exogenous approach)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내부 및 주민자치적으로 행해지는 내생적 접근(indigenous approach)을 강조하였다. 대안적 접근은 커뮤니케이션 전략면에서도 초기 접근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기 접근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전달에 중심이 주어졌던 반면 지역사회내의 변화를 위한 잠재성을 자극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면에서도 지역사회주민들의 통제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여러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과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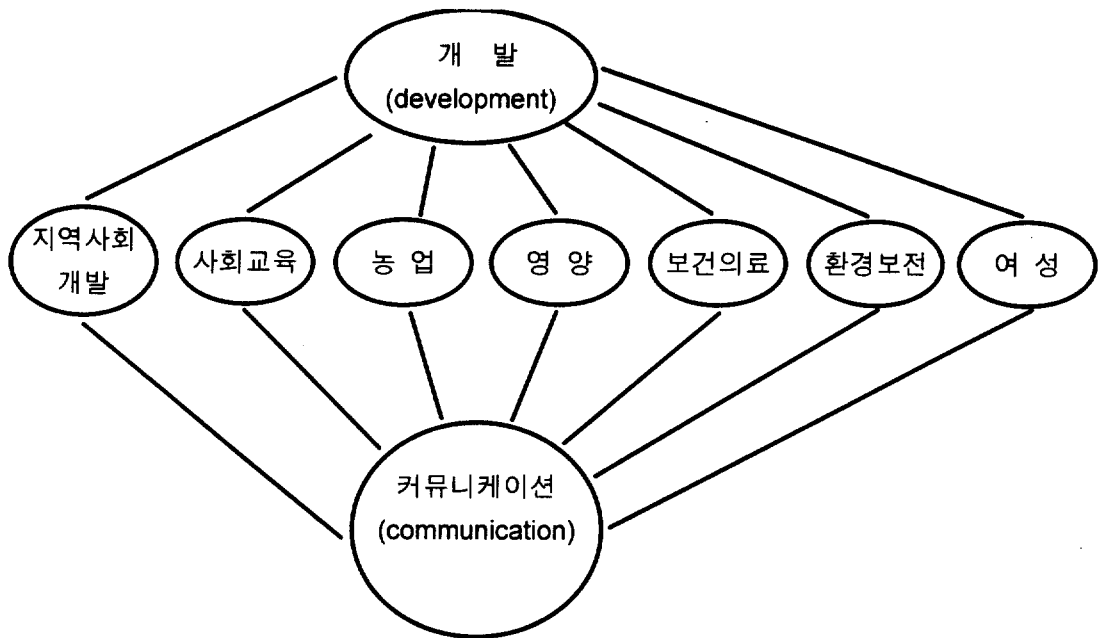
최근 발전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발전개념에 대한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1982년 환경과 개발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창하였다. 그 배경에는 지금과 같은 개발로는 하나밖에 없는 자원인 지구를 인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우리 후손의 생존기반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세대의 필요를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의 방식을 주창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은 당연하지만 이 같은 개발은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막

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의 해소로 현재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가능개발은 현재 개발의 전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국가의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자문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개발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이를 소통시키는 기술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융합한 정보통신기술은 개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매체들과의 융합하면서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와 지식을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매체들이 상의하달, 일방적이었던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인해 개발분야의 활용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개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은 개발노력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개발 커뮤니케이션이란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용된 영역은 주로 국제적인 개발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식, 기술, 가치관, 태도 등을 후진국으로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미 국제원조처, FAO, UNESCO, UNICEF, UNDP 등의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된 개발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제3세계에서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당시 중



〈그림 3〉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요한 사회적 과업이었던 농촌지도, 지역사회개발, 가족계획, 아동영양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인 원조자금을 바탕으로 전개한 개발사업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교육을 비롯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전파, 가족계획, 영양, 보건, 성인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적용이 이루어졌다.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적용영역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즉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주 대상이던 분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대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존, 여성, 원주민, 청소년, 식량안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심각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에이즈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 초기의 개발사업들이 주로 국제기구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NGO들의 참여가 활

발해지고 있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적용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보건, 지역사회개발, 영양, 환경보전, 교육 및 여성 분야의 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주요 영역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IV.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역할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어떤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개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FAO(1994)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다 나은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역할이다. 많은 개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을 변화의 주도자로서 보다는 단순한 수용자로서 파악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의논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

케이션은 단순한 Q&A 조사수준을 넘어, 토론,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시청각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지역사회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시각(입장)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잘못된 방향설정을 예방해 줄 수 있다.

둘째,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동원을 위한 역할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이해집단에 속한 주민들간의 정보와 아이디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대화는 개발이슈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지역주민들의 생각 파악, 다른 지역사회들의 성취 등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진다. 이러한 방법은 주민들의 요구와 능력을 기초로 합의에 도달하고 행동화에 대한 공감대를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화는 대화에 능숙한 현장요원에 의해 시작되고 안내되어 질 수 있다. 플립 차트, 오디오 카세트, 슬라이드, 비디오 등과 같은 토의수단은 시각적, 사실적으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농촌라디오 포럼은 지역사회문제와 해결책 모색에 좋은 방법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다.

셋째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이다. 농촌주민, 여성 등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10대임신, 청소년의 학교중퇴, 약물남용 등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의 생활양식 변화라는 길고, 복잡한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는 청소년임신, 에이즈,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해를 얻어 낼 수 있다. 동료상담방법과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집단토론 방법 등과 결합하여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사회 수준의 태도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허용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교육훈련의 개선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드라마틱한 시청각 교재는 교육 훈련에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생동적이게 한다. 시청각 교재는 지역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될 수 있다. 시청각 교재는 훈련생들에게 심지어는 비문해자 일지라도, 실천에 앞서 복잡한 기술과 과정을 보고 토의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청각 교재훈련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단순히 듣는 것보다 5배, 단순히 정본을 읽은 것 보다는 9배의 효과가 있다.

다섯째, 정보의 빠른 확산이다. 매스미디어는 정보의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과 시간적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 라디오, TV, 기타 전자매체, 신문의 이용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매스 미디어 이용 비용은 수용자의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매체조직의 소유권이 국가인지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대중매체 이용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수준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효과적인 운영과 조정을 위한 역할이다. 새로운 개발 문제가 부처안에 소개되거나, 팀웍이 필요하거나, 기획자나 정책결정자가 개발의 결과가 나타난 사회적 효과에 대해 감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다. 여러 단위의 개발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은 공통이해를 수립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일에 몰입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일곱째, 의사결정자의 지원을 얻어내는 역할이다. 정보, 기술지원기관, 기금증여기관 등의 의사결정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 확장 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성취에 대해 정보를 받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의사결정자들의 지원을 얻는 역동적인 수단이다. 회의 발표에서 비디오, 사진, 시청각 기자재 등은 통계나 자료들을 시각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비디오 프로그램은 특별히 유용한데 의사결정자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방송의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FAO는 개발사업의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Röling (1994)은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현상의 가시적 설명(making things visible)으로 처방된 해결책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둘째는 정책수용의 촉진으로 설득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정책결정이 강조되는 상황에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이다. 셋째는 플랫폼과정의 촉진으로 다양한 관련자에게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발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Schrum(1976)은 매스미디어의 개발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매스미디어는 근대화에 호의적인 새로운 가치, 태도, 행동양식을 유발함으로써 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매스미디어는 문자를 해독함으로써 농업, 위생, 자동차 수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볼 수 있다.

③ 매스미디어는 지식자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매스미디어는 대리경험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그럼으로써 기동성 있는 인성을 창조하기 위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⑤ 커뮤니케이션은 활동의 동기가 되는 열망을 고취시킨다.

⑥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도록 증진시킨다.

⑦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에게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전통적인 성격을 띤 사회에서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정통한 사람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다른 요인의 기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전통적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⑧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에게 지식을 제공함

으로써 전통적인 성격을 띤 사회에서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⑨ 커뮤니케이션은 국가관을 형성시킬 것이다.

⑩ 커뮤니케이션은 국민 대다수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며 이것이 정치활동을 활성화 시킨다.

⑪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의 필요에 상응하는 발전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⑫ 커뮤니케이션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을 국민들 스스로 영속된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영양교육분야 전문가인 Hornik(1988)은 개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좀더 다양하게 파악하고 개발 대상자와 개발기관에게의 역할 그리고 두 주체간의 역할과 나아가서는 외부기관에 미치는 역할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① 저비용 고효율의 전달자 ② 체제 개혁의 유도 ③ 정치적 계도의 수단 ④ 조직자 및 유지자(communication as organizer and maintainer) ⑤ 상호작용 촉진자 ⑥ 평등화의 기제 ⑦ 질적 향상 기능 ⑧ 합법화 및 동기화 기능 ⑨ 피이드 포워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⑩ 독립과 통합 ⑪ 요구의 창출과 충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을 위한 노력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개발사업의 외부와 정보교환 및 조정, 홍보 내부적으로는 기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능하고 있다.

V.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을 위한 개발 커뮤니케이션 접근

개발 커뮤니케이션은 약 50여년의 역사를 가지는 동안 몇 가지로 구분되는 접근을 통해 여러 영역의 개발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은 서구중심에서 자국중심으로,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의하달,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하의상달적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

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래문화와 지식에 의한 개발보다는 개발지역의 문화와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되고 있다. 접근이 이루어진 시기 순으로 보면 매스미디어 접근이 가장 먼저이고,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 참여개발커뮤니케이션 순이고, 전통 및 민속매체 접근과 정보통신기술 접근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제시되는 순서는 우리의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전통 및 민속 커뮤니케이션 접근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소외당하던 전통 및 민속매체 커뮤니케이션(traditional and folk communication)은 최근 새로운 각도에서 재평가 받고 있다. 과거의 개발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자와 실천가들 사이에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내생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전통 및 민속 커뮤니케이션은 내생 커뮤니케이션으로 외생 커뮤니케이션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지역사회교육에 적용되는 지식이나 매체는 대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다. 이에 비해 내생지식이나 전통 혹은 민속매체는 지역사회에서 전래되어오는 것들이다. 해당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하다.

Mundy(2000)는 내생 커뮤니케이션과 내생지식의 지역사회개발에서 활용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외생지식(exogenous knowledge)을 회생 커뮤니케이션(exogenous communication)을 전달하는 경우와 외생지식을 내생 커뮤니케이션(indigenous communication)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내생지식을 외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생지식을 내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밀접한 지식, 신념, 관행 등을 가지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법,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 등을 수세기 동안 축적해 왔다. 그들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언제 파종하고 수확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독이 있고, 치료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 환경을 형평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농사, 교육, 음식, 자연자원, 가축 등 각 분야에 축적되어 있다. 개발에서 내생지식은 어떤 경우 외부 지식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생지식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점차 내생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개발에서 내생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내생지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결정을 위한 기초가 된다.

사람들은 내생적인 관행과 기술에 친근하다. 외부에서 유입된 관행이나 기술보다 쉽게 이해되고, 다루기 쉬우며, 유지하기도 쉽다. 또한 내생지식은 내부자원을 활용한다. 주민들은 외부공급에 의존정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비싸거나, 희귀하거나 비 정규적으로

<표 1> 내생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외생지식	내생지식
외생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전	내생지식에 기초한 개발
내생 커뮤니케이션	확산, 민속매체활용	문화지속과 발전

구득이 가능한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② 내생지식은 서구의 노하우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고한다. 지역주민과 개발 요원들에게 사업 설계시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해 준다. 대안 모색에서 단지 서구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내생지식으로부터 혹은 내생과 서구기술의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내생기술과 관행은 서구의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지역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자원에 의존하고, 소액의 비용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발사업에서 그 지역사회에 전해오는 전통 및 민속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매체의 이용은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② 대상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지방언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③ 대중매체에 비해 전통매체를 통한 전달의 신뢰성이 더 높다.

④ 근대 기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⑤ 전통매체는 교육과 오락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⑥ 전통매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 사회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태도변화에 특히 유용하다.

⑦ 전통매체는 집단분위기에서 활용됨으로 지역 연대감을 유발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이 지속가능개발을 지향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전통 및 민속 커뮤니케이션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 민속커뮤니케이션만을 이용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다른 방법들과 더불어 사용한다든지, 외생 지식 및 매체와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 정보통신기술 접근

개발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의 출현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소비자로 머물러 있던 주민들을 정보생산자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다른 매체와 융합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창출, 접근,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개발사업에서 갖게되는 장점으로는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를 개선시키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와든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은 지역주민과 개발사업기관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촉진시켜주며, 개인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인터넷은 하의상달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지식을 공유하게 해준다. 또한 개발자원의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오며, 정보접근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에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의사결정과정 : 훌륭한 의사결정은 종합적이고, 시의 적절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가능성에 달려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자, 기획자, 정책결정자, 개발요원, 농민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인터넷의 여러 기능들은 정보를 보내고 받는데 유용한 기술이다.

② 시장전망 :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판매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함으로써 오프라인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가들로 하여금 전 세계시장에 접근 가능하게 하며, 낮은 가격으로 상품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③ 지역사회 임파워링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발언권을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기능은 정책형성과 실행에

참여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주변집단에게 접근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계층들에게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교육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FAO(1999)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학습도구, 학습 게임, 학습네트워크
- 상호작용적인 농업정보망
- 민속학교, 농민학교
- 시장정보 네트워크
- 원격학습 프로그램과 원격학습 네트워크
- 참여연구와 실천 네트워크
- 상호작용 전문가 시스템
- 조기경보시스템과 자료수집네트워크
- 교육훈련망
- 소규모 기업개발네트워크 및 마케팅
- 농촌 매체 네트워크
- 농업-환경-보건 네트워크
- 내생지식 네트워크
- 병충해 감시 네트워크
- 수질정보관리 네트워크
- 농산품 및 농업서비스 무역네트워크

그러나 개발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많은 개발사업에서 고급기술이어서 실제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간, 혹은 소형 매체의 사용이 현실적으로는 더 권장되는 기술이기도 하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소외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 지역주민 참여개발 커뮤니케이션 접근

민주화의 바람과 더불어 개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지역단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여개발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동화과정에 대한 관심은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적 접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였다. 개발실천가들 사이에 참여개발 커뮤니케이션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참여개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자신감과 자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초기 개발과정에서 객체로 간주되던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을 어떤 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참여개발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민참여는 4가지 방법 즉 실행, 평가, 이익,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로 요약된다 (Uphoff, 1985).

이 접근은 소규모,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대인커뮤니케이션,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다. 초기 발전 커뮤니케이션 즉 매스미디어 접근이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역할을 무시했던 것과는 차이나는 점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역사회와 이보다는 더 넓은 지역의 개발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Chin Saik Yoon (1996)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해당지역언어
- 청취능력
- 갈등관리를 타협
-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
- 전통 및 민속매체의 발굴
- 지역사회 진입전략
- 참여계획 촉진
- 행동화의 촉진
- 비용-이익 공유 촉진

- 평가 촉진
- 지역사회 철수
- 철수후의 관계 유지하기

이 접근은 소규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개발 접근 시에 가장 유용하다. 지역사회 개발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4.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 접근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Development Support Communication)은 특정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이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 접근을 주로 한 반면 이 접근은 특정사업의 범위로 그 적용이 한정된다. 매스미디어 접근과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을 비교하면 <표 2>에서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이 대중 매체를 동원하여 국가 및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동원과 교육에 치중한 반면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목표면에서는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후자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료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전자가 개방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일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캠페인 형식으로 전달한다. 전자가 대중매체 중심의 기술 활용에 의존한다면 후자는 여러 매체중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커뮤니케이션 흐름 측면에서는 전자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민 참여적이고 상호 작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개발연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비판 속에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국제기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접근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처럼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은 특정한 지역이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협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지원 커뮤니케이션은 기획과 실천과정은 다음과 같다(FAO, 1999).

가. 커뮤니케이션 기획과정

- ① 상황분석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 ② 제도적 틀
- ③ 커뮤니케이션 자원 목록
- ④ 물리적 기술적 환경
- ⑤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표 2> 매스 미디어 접근과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 접근의 비교

매스 미디어 접근	개발지원 커뮤니케이션 접근
국가 및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	지역 혹은 좁은 지역에 적용
비직접적, 불명료	직접적이고, 효과 및 목표 지향적
개방적이고 설득적	시간 제한적이고, 캠페인의 형태
기술의 특성에 효과를 의존	메시지 지향적, 내용 중심
기술매체 즉 매스미디어에 의존	모든 매체의 이용
상의하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적, 참여적
연구에 어려움(변인의 다양성), 연구 부족	연구용이, 변인통제, 측정 가능 연구 풍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뢰성 상실	신뢰성 획득, UN 및 대부분의 개발기구에서 채택

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실행단계

- ① 참여기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정의 마련
-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파악
- ③ 대상자로부터 필요한 태도와 행동 목표설정
- ④ 대상자 분석
- ⑤ 대상집단별 커뮤니케이션 계획
- ⑥ 메시지 디자인
- ⑦ 자료의 개발과 예비테스트
- ⑧ 현장 요원의 훈련
- ⑨ 실행
- ⑩ 모니터링과 평가
- ⑪ 모니터링 결과의 실행과정에 피드백
- ⑫ 최종 종합평가

이 접근은 외부 주도적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현재 UNDP, UNICEF, FAO에서 저개발국을 개발사업의 전개에서 가장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접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마케팅(social marketing)과 사회캠페인(social campaign)은 최근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5. 매스 미디어 접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접근에서 초기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으로 활용되어 비판을 받은바 있지만 나름의 유용성은 인정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70년대 이전 농촌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Rahim (1976)은 농촌지도 및 지역사회개발접근(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approach), 이념 및 대중동원(ideological and mass mobilization approach), 매스미디어 및 교육접근(mass media and education)으로 구분하고 이 세 접근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보흐름면에서 보면 수직적이라는 것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집단은 사업의 기획과 실천에 관련된 개발요원, 개발수

혜자들간에서 아주 낮은 빈도로 이루어질 뿐이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후 농촌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지도그룹은 전문적인 기획자, 교육자, 행정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변화촉진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은 농촌가족, 자연부락, 협동조합 등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특징은 이념적이거나 정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 메시지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특정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동기화하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정보적 메시지는 인지, 흥미, 지식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매스 미디어와 라디오, TV, 신문 등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다가가며, 대인매체는 집단회의 토의, 훈련, 전시(demonstration) 등의 방법과 마을 수준에게는 변화촉진요원, 여론지도력, 정당 대표 등을 활용한다.

근자에 오면서 매스 미디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스 미디어의 운영이 상업화되면서 공공적 목적 및 소외된 자를 위한 활용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거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공익광고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 활용은 아닐지라도 홍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은 가능하다. 최근에는 매체가 다양화하면서 TV만 하더라도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이 생겨나 채널의 수가 확대되면서 특정계층을 위한 방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과 매스미디어의 융합은 매스미디어가 가지는 장점에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장점이 보태지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매스미디어 접근은 일방적, 설득적 특성 때문에 비판받기는 하였지만 매스미디어가 갖는 다수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매체이다.

VI.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커뮤니케이션 접근의 접목을 시도하여 연구와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개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영역의 소개와 접목을 통해 개발노력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과거의 외생 지식 중심, 일방적이고, 상의하달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점차 내생지식에 대한 관심, 하의상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민초들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재지향하는 바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이나 사회교육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접근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변형되거나 통합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 학문은 태동과 실천의 현실적 바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에서는 서로 보충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진입한 현대의 사회적 상황 하에서는 더욱 커뮤니케이션적 요소가 급변하는 주제중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개발 커뮤니케이션적 접근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VII. 참고 문헌

1. 권일남·김성수, 1989, 농촌개발을 위한 개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고찰,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1, No 2. pp 43-53, 한국농업교육학회.
2. 김성수·최민호·정지웅, 1982, 농촌개발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농학계 각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개발 보고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3. 이상희, 1978, 미국의 근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커뮤니케이션과 발전, 한국신문학회보 제10호 pp.157-184, 한국신문학회.
4. 임상봉, 2000,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의 기초학문으로서의 지역사회학과 지역사회교육학, 정지웅(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5. 정득진, 2000,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지웅(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6. 정득진·황을호, 1998, 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의 관계성 탐색, 지역사회개발 연구 제 23집 제2호,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7. 전은경, 1999, 발전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 미간행 원고.
8. 정지웅·임상봉, 1997,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9. 최윤희, 1996, 사회캠페이션론, 서울: 나남출판.
10. 한승희, 1999, 성인교육이론,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서울: 하우동설.
11. Awa Njoku E., 연도미상, Translating The US Extension Model into Low-technology Nations: Some cultural and Structural Problems, (compiled by) Royal D. Colle, Cornell University.
12. Beltran L. R., 1974,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Communication and Social Communication :Relationships and Strategie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ural Development, Proceedings of Cornell-CITA International Symposium March 17-11.
13. Beltran L. R., 1993,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 Forty-Year Appraisal (<http://www.Southside.SG./Souths.SB> title/cul-ch.html).

14. Bessette, G. and Rajasunderam, C. V., 1996, Participatory development communication: a West African agenda. Ottawa & Penang: IDRC & Southbound. (<http://www.idrc.ca/books/focus>).
15. Bessette, Guy, 1996, Development communication in west and central africa: toward a research and intervention agenda.
16. Chu Godwin C, 1987, Development Communication in the year 2000 : Future Trends and communication, Asia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re, pp 96-117.
17. FAO, 1994, Communication, a key to human development.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Group. Rome: FAO.
18. FAO, 1999, The Internet and Rural Development, Rome: FAO.
19. FAO, 1999, Guidelines on Communication for Rural Development, Rome: FAO.
20. Harris, E. M., 1996, The role of participatory development communication as a tool of grassroots nonformal basic education, Workshop Report 1.
21. Hornik, Robert C., 1988, Development Communication. Information, Agriculture and Nutrition in the Third World. New York: Longman.
22. IK Monitor, 1993, Backgroun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digenous Knowled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Http://www.nuffic.nl/ciran/ikdm/1-2/articles/background.html](http://www.nuffic.nl/ciran/ikdm/1-2/articles/background.html)).
23. IIRR, 2000, Indigenous knowledge ([Http://www.panasia.oeg.sg.iirr/ikmanual](http://www.panasia.oeg.sg.iirr/ikmanual)).
24. Ithiel de Sola Pool, 1983,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edited by Ramirez Jaime B., Gaisanno Superbookstore, pp. 84-91.
25. Jarvis Peter, 1995,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ew York : Routledge.
26. Karani F, Nturibi D. and Kasoma K., 1984, Community Development workers Training Series Training Curriculum, Communication For Basic Services Regional Training Project, UNICEF Eastern Africa Regional Office, Nairobi : Kenya.
27. Quebral Nora, 1983, Quebral and Middleton: Some Thought on Development Communication, Past, Present, future. Development Communication Report No. 13, Clearinghouse on Development Communication.
28. Rahin Syed A., 1976, Communication Approaches to Rural Development, edited by W. Schrum & D. Learner, Communication and Change, An East-West Center Book,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29. Rajasunderam C. V., 1998, What is Community Communication. (<http://www.ryerson.ca/devcom>)
30. Ramirez Jaime B., 1983, Development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edited by Ramirez Jaime B., Gaisanno Superbookstore.
31. Rogers Everett M., 1996, Bright Spots in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ommunication Empowerment :Uses of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Developing Countries, Los Angeles April 11-13. (www.usc.edu/dept/pdcomm/roger.html)
32. Schramm Wilbur 저, 김일철·조명한 번역 1976, 매스미디어와 국가발전 I, II, 서울: 을유문화사.
33. Schramm Wilbur, 1983,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edited by Ramirez Jaime B., Gaisanno Superbookstore, pp. 61-83.
34. Servaes Jan, 1986,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Paradigm: An overview, Media

- Asia, Vol. 13, No. 13, pp. 128-36.
35. Uphoff N., 1985, "Fitting projects to people" in Cerner, M. M.(ed.) (1985) Putting People first : sociological variables in rural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6. Vargas Lucila, in press, What is Development Communication? History of the Mass media in the United States: An Encyclopedia. (ed) Margaret Blanchard, Garland internet.
37. Yoon Saik Chin, 1996, Participatory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http://www.orbicom.uqam.ca/en/papers/yoons2.html>) (2000년 10월 19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